

“모든 노동자는 성차별에 저항하라”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 성별 임금격차 해소, 평등한 돌봄 등 요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이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차별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연맹과 3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차별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2024년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행진을 시작해 종로 일대를 지나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했다.

행진 도중 종로 4가에서 여성 노동자 차별에 대한 저항을 다짐하며 38초간 도로에 눕는 ‘다이인(die-in)퍼포먼스’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여성·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며 ▲성별 임금격차 해소 ▲평등한 돌봄 ▲여성 노동권 쟁취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학로에서 벌인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3배가 넘고, 매년 일등이다” 라면서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 성별 임금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단호하게 정권의 책임을 물어 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성차별은 비정규직, 인종, 학벌, 장애인 차별을 용인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이기에 모두 투쟁해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소현숙, 박정혜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유타칼하이테크지회 동지들은 영상을 통해 “일본 니토덴코 자본에 맞서 고용승계를 외치며 61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라며 “전국의 수많은 여성 노동자의 투

쟁을 응원한다” 라고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대회에서 성평등 모범조합원상을 받은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회 무티아라 차흐안다, 디아나 알리파흐 엘리 조합원은 “1년 동안 사장에게 성추행 당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노동조합을 찾아갔다” 라면서 “노조에서 만난 동지들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매일 공장에 와서 함께 싸웠다” 라고 밝혔다.

두 조합원은 “사장은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퇴직금과 체납 임금도 받았다” 라며 “을

면서 하루를 보냈던 우리가 이제는 강인한 여성이 됐다” 라고 힘차게 외쳤다.

민주노총은 대회에서 성인지 노동환경 개선, 성별 임금격차 해소, 안전과 재생산에 미치는 노동환경의 성별 영향 점검, 12세 미만 아동 양육자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 우선 적용, 성평등 단체협상 의무 법제화 등 여성 노동자 22대 총선 요구안을 발표했다.